

# 물류우수혁신사례 현장 벤치마킹 방문기



**【박명규-(주)힐스로지스틱 대표이사】**

국내외로 물류는 참으로 뜨겁게 회자되는 금세기 최고의 화두 중의 하나인 듯 하다. 물류가 침체된 국내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을 마지막 카드이자 희망임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지난 일년동안 여러가지 비즈니스에 바빠서 동종업계의 우수물류현장에 대한 관심을 등한시 하다가 (사)한국물류협회에서 모처럼 마련한 우수 물류현장 벤치마킹 기회가 있어서 이른 아침 마포에 위치한 출발현장으로 떠났다. 물류현장에서 종사하는 40여명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등 큰 관심을 반영하는 좋은 만남의 장이었다.

할인점 업계의 선두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신세계이마트의 시화 물류센터, 규모면에서 동양최대의 외형을 자랑하는 삼성테스코 목천 물류센터, 고급브랜드의 의류물류센터 FGF 평택 물류센터, 또 인천, 부산, 광양에 이어 제4의 경제자유지역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물류기지 평택항을 방문하게 되었다. 또한 양지에 위치하여 나름대로 빠른 속도의 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웅진 물류센터도 방문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번 방문단에는 10명의 직원이 참여한 (주)힐스로지스틱에 이어 삼성HTH에서도 5명의 많은 직원이 참여해 물류센터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 주었다. 또한 농협중앙회에서도 2명의 주요 간부가 참여하였다.

오전 출발에 다소 차질을 보였으나, 첫번째 방문지인 시화물류센터로 출발하였다. 시화물류센터에 도착하자 공항점에서 근무하다 최근에 새로 부임한 신인식 센터장이 반가운 마음으로 저희 방문단 일행을 맞이해

주었다.

국내 소매기업의 가장 성공한 사례 중의 하나인 신세계 이마트의 최신 물류기지인 시화물류센터는 공산품의 분류기능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는 Dry Center와 신선식품의 유통기능을 아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Wet Center가 함께 운영되고 있는 국내에서 가장 효율의 물류센터임을 자처하고 있는 물류시설이었다.

한국을 방문하는 물류선진국들의 우수 물류업체들도 한국을 방문하면 빼놓지 않고 찾아오는 단골 벤치마킹 물류센터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

다년간 축적된 물류센터 오퍼레이션 경험이 베어 있는 시화물류센터는 One Way Operation 구조로 설계되었고, 특히 EAN-14 코드를 성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물류센터임이 아주 인상적이었다.

또한 바스바코드에 세자리의 코드를 덧붙여서 잉크젯 프린터로 5초간의 간격으로 부문명을 인쇄하여 점포뿐만 아니라, 부문별로도 상품을 물류센터에서 구분하도록 함으로써 점포에 도착 했을 때에 부가적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최적화된 프로세스를 구현함이 아주 인상적이었다. 전주 이북의 호남권도 배송권역으로 커버하여 아직 구매상권이 미약한 호남권까지도 일일 배송권으로 포함시키는 상황이었다.

오후에는 삼성테스코의 방문일정이 바뀌어서 인천과 당진의 중간에 위치하고 대중국 무역의 중요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평택항을 방문하게 되었다. 앞으로 2020년까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개발되고 있는 평택항을 방문하면서 동북아 물류 중심에서 있는 우

리나라의 위상을 깊이 실감할 수 있었다.

벤치마킹 첫날의 마지막 순서인 FGF의 물류센타를 방문하게 되었다. “재고관리의 로스률이 거의 제로 수준에 이르는 아주 우수한 관리수준을 보여 주고 있는 의류 물류센타임을 자처하고 있다.”고 FGF차용남부장이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벤치마킹 첫날 스케줄을 마치고 천안 상록수 리조트에서 여장을 풀었다. 나와 (사)한국물류협회 이민수팀장이 진행한 ‘물류업계가 처해 있는 당면과제’에 대하여 워크숍을 진행한 다음부터는 각자 흠어져서 물류인으로서의 화목과 정보교환을 위한 유익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한해가 가기 전에 함께한 아주 유익한 물류인의 밤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다음날은 양지에 위치한 웅진 물류센타와 목천에 위치한 삼성테스코의 상온 물류센타를 방문할 수 있었다. 특히, 년초에 오픈한 삼성테스코 물류센타는 소매업체로서는 동양최대 규모

를 자랑하는 아주 대형의 허브형 물류센타이다. 2시간 권역의 납품업체들의 도착거리에 위치하여 향후 5개년의 장기계획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대형물류센타이다.

또한 전국권역을 1일2편 배송체제로 커버하여 효과적인 물류시스템으로 할인점업계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OCC(Outer Case Code)라는 박스바코드 체계를 통하여 신세계이마트와 똑같은 EAN-14코드를 활용한 국내 소매업계의 두번째 성공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이밖에도 삼성테스코는 국내 소매업계 물류센타의 많은 진기록을 가지고 있다. 11톤의 대형 물류차량을 운

영하여 물류비를 대폭 낮출 수 있었고, Tilt-tray형 고속 상품 분류기를 운영하여 상품분류 속도를 대폭 높였다는 기록도 가지고 있다. 또한 RFID를 활용한 원스톱 무검사 체제를 시험단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아주 인상적인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거대한 외형적인 성장보다는 1000여개 이상의 많은 매장을 오랫동안 운영하면서 축적해 온 물류센타 운영 노하우가 앞으로 한국내 유통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홈플러스 목천 물류센타에 활용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기대되는 바 크다 하겠다.

한국시장에는 물류의 열풍이 그 어느 때보다도 거세게 불어닥치고 있다.

현재는 남북간의 철도연결로 상징되는 TKR(한반도 종단철도)과 TSR(시베리안 대륙철도) 또는 TCR(중국 대륙철도)의 연결 사업으로 시작하여 인천, 광양, 부산의 FTZ(자유관세지역) 지정으로 상징되는 ‘동북아 물류 중심지화 정책’의 지속적 수행 등으로 물류의 뜨거운 열풍은 좀처럼 잦아 들지 않을 것

이다.

그러나 선진 물류기법을 활용한 저비용 고효율의 우수 물류센타의 건립 운영 등으로 기업물류 분야에서도 지속적인 혁신과 도약의 진보적인 성과가 기대된다.

이에 중요 정책부서의 고위 공직에 근무하는 분이나 기업의 중요 의사결정권자의 위치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아닌 기업 물류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물류전문가들로 구성된 금번 우수물류센타 벤치마킹 방문단의 행보는 의미가 크다 하겠다.

앞으로도 물류인으로서의 많은 교제를 기대하면서 이번 방문기의 소감을 마감하고자 한다. **물류**

